

# 공급원가 올라 고민인 中企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도”

## 상생협력법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도의 신청요건과 협의절차를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

의 종료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양 기관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설립회 △교육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1



## 이디야커피, 여수에 1호 드라이브스루 매장 열어 ‘여수 한재DT점’ 오픈

이디야커피는 여수시에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매장 1호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여수한재DT점’은 여수의 대표적인 주거 및 상업지인 여수 지역과 관광지인 돌산대 사이에 위치했다.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이순신 광장’과 ‘돌산 공원’ 등 관광 명소가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차량 내에서 편리하게 이디야커피를 맛볼 수 있다.

또 매장에서 커피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연면적 239.6㎡(약73평) 규모의 2층 매장에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좌석을 마련했으며, 충분한 주차 공간과 함께 돌산대교와 여수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췄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매장 경쟁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1호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며 “여수 한재DT점을 시작으로 추후 다른 지역에도 드라이브스루 매장 오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달콤하고 아삭한 홍로 햇사과 드세요” 2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달콤한 과일이 풍부하고 아삭한 국산 품종 햇 사과 ‘홍로’를 선보이고 있다.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호텔 설계공모...2020년 착공

### 관광공사, 서남권 활성화 위해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리조트 호텔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오시아노 리조트호텔(가칭) 조성사업을 설계공모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반공개로 추진한다. 설계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1부지에 연면적 1만1600㎡ 규모의 객실, 부대시설, 운영지원 시설 등을 직원기숙사, 야외 풀이 등 반편 옥외시설 등을 설계하게 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오시아노에 서민의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설이 설계돼야 한다”며 “다채로운 객실과 부대시설 및 해안가 언덕에 자리한 부지의 장점을 극대화해 관

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가 당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총 3인까지 공동응모할 수 있다. 대표자는 상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가등록은 9월 20일까지이며, 작품접수 마감일은 11월8일이다. 이후 기술심사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발표한다. 김찬중 더시스팀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건축 전문가 총 6인이 심사에 참여한다.

1등 당선작(1작품)에게는 설계료를 부여하며 2등 4000만원, 3등 3000만원, 4등 2000만원, 5등 1000만원 등의 보상을 지급한다.



를 위한 현장설명회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이며, 참가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뉴스1

## 보이콧 재팬에 동남아 예약자 2배 ‘경중’

### 제주항공 동남아 증편 박차

제주항공이 코타키나발루, 세부 등 동남아 노선 증편에 나선다. 일본 수요 감소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을 여행 선호지를 중심으로 공급석을 확대한 것이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코타키나발루 등 인천발 4개 노선이 순차적으로 증편되고, 대구발 1개 노선이 신규 취항한다.

먼저 9월1일부터 인천-코타키나발루(주7회→주11회), 9월9일부터 인천-마카오(주7회→주11회) 노선이 각각 주4회씩 증편된다. 증편 적용 기간은 두 노선 모두 10월26일까지다. 또 9월 1일부터 10월20일까지 인천-가오슝(주4회→주5회), 9월11일부터 9월29일까지 인천-치앙마이 노선(주5회→주7회)에 대해서도 증편 운행한다.

대구-세부 노선은 9월17일부터 주 4회(화·목·토·일요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이 노선은 대구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5분(이하 현지시간)에 출발해 세부에는 밤 11시15분 도착이며, 세부에서는 다음날 0시15분 출발해 대구공항에 아침 5시1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공급석 확대는 9-10월 예약자 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기준 제주항공의 9-10월 동남아 노선 예약자 수는 총 38만4900명으로 전년 대비 58.3% 늘었다. 9월 20만2500명, 10월 18만2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명과 9만3100명보다 각각 37%와 96% 증가했다.

타이베이도 10월 예약자는 8800명으로 전년(4200명) 대비 약 2배 늘었다. 또 지난해 취항한 가오슝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타이베이보다 운항횟수가 적은 주 4회임을 감안할 때 6200명의 예약자는 비교적 높은 예약상황이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노선 수요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 여파, 지난해보다 늘어난 동남아 노선 공급석과 이에 따른 프로모션 등이 꼽힌다. 실제 일본 노선의 10월 예약자 수는 6만5600명여로 전년 대비 30% 수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9-10월 동남아 노선에 확대한 공급석은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약 53만석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질병,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언제나 있었고, 이를 고려한 노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다”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여행지의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맥도날드, 인기 제품 ‘콘파이’ 재출시...“10월 말까지 한정 판매”

맥도날드는 지난해 출시했던 ‘콘파이’를 다시 선보이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파이는 태국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국내 고객을 위해 지난해 9월 한정 출시했다. 출시 당일 한국맥도날드 역사상 단일 제품 기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품질대란을 일으켰다.

맥도날드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달콤한 맛을 강화한 콘파이를 다시 한정 출시하기로 했다. ‘행복의 나라’ 메뉴로 출시돼 가격은 1000원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콘파이를 향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업그레이드된 맛으로 재출시를 결정하게 됐다”며 “태국에 가야 접할 수 있던 콘파이를 이제 국내 맥도날드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



이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중요하고 중요한 광주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